

# ‘정직성과 공평무사한 관리, 개척정신으로’

## -대학 입학 예비고사의 전산화 연구-

### 최영화

#### 1. 개요

본 프로젝트는 SERI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고 KIST 전자계산실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여 오고 있다.

예비고사는 대학에 가기 위한 자격을 주는 국가고시로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되었다. 대학 가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예비고사에 합격하고 대학별로 보는 입학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1981년부터 1992년까지 대학별로 치뤄지는 입학시험이 없어지고 국가에서 관장하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로 바뀌었다. 내신성적과 같이 학력고사 성적이 입학 사정의 기준이 되었다. 학력고사는 1987년까지는 국가에서 출제, 시험관리, 채점을 모두 운영하다가 1988년부터는 출제만 담당하고 고사시행 및 채점은 대학에 맡겨졌다.

1993년부터는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학교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사고력 및 추리력 언어능력에 중점을 두는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번 바뀐 대학 입시의 국가고시 채점 업무를 1970년부터 지금까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 2. 배경

대학 입학 예비고사가 처음 실시되던 해의 응시인원은 20여만명이었다.

객관식 시험으로 채점은 고사장별로 감독 선생님이 하였다. 채점과 검산을 하고 수험생 개인 교시별 성적을 합산한 후 전표를 만들었다. 이 전표를 문교부에서 수집하여 전체 집계 및 석차를 매기고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채점을 하고 전표를 만드는 과정은 문제가 없었으나 전체 수험생에 대한 집계와 석차 부여 및 합격자 결정을 수작업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주산 5단 이상 되는 학생 30여명이 20일 이상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교부 담당자는 최지훈 교수(서울 대학교 수학과 통계학 전공)를 찾아갔다. 예비고사 채점관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한 작업은 컴퓨터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해부터 예비고사 채점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최지훈 교수와 성기수 박사님에 의하여 전산화 작업이 착수되었다.

## 3.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

처음 전산화 작업에서 80만장의 답안지 입력이 문제였다. 천공작업으로 하니 양도 많거니와 정확도에도 문제가 있고 확인작업에도 많은 시간의 소요되었다. 전산화 작업 두번째 연도에는 성기수 박사님께서 OCR 기계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처음 실시 하던 해의 20여만명의 응시자가 점점 늘어나서 88년도에는 무려 70만명이 넘어서게 되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 건수가 답안지 및 원서를 합하면 350만건이나 되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처리하는 기관은 198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데도 없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매년 늘어나는 한편 처리할 기간은 일정했다. 업무의 성격상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었다. 또한 답안지 입력에서부터 시작하여 채점, 사정 결과의 통보까지 한건의 잘못도 용납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의 특성 때문에 같은 작업을 두번 이상 확인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처리하려고 연구원들은 두달간 거의 집에 가지 못하고 밤샘작업을 하였다.

너무나 힘든 프로젝트여서 기피 대상 1호였다. 그래서 인원 충원이 항상 문제였다. 처음 입소한 연구원들은 반드시 참여하게 해서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은 한번 이상은 경험이 있다. 처리하는 시기가 항상 겨울철이라 밤이 되면 난방 시스템도 중지되고 차가운 방에서 두터운 파카를 걸치고 작업했다. 보안을 요하는 작업이라 보안구역이 설정되고 타실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 되었다. 결과가 발표되면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고 혹시나 잘못이 없나 가슴 졸였다.

#### 4. 결언

입시관리가 대학자율에 맡겨진 1988년 이후 매스컴에 보도되는 입시부정과 비리에서 알수 있듯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산 기술적으로만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지극히 높은 이 이벤트를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성기수 박사님의 정직성과 공평무사한 관리,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한 개혁정신이 이 업무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의 머리에 새겨진 것이라 하겠다.